

‘살아온 이야기’의 담화 전략

- 삶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

김예선*

<차례>

1. 문제제기
2. 조사개관 및 자료의 성격
3. 살아온 이야기의 담화 전략
4. 마무리

<국문초록>

이 글은 살아온 이야기가 어떠한 담화 전략을 지니고 있을 때 이야기판에서 소통하며 기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편적이고 제각각 존재하는 삶의 경험들을 살아온 이야기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며 과거의 삶을 구조화한다. 삶을 이야기로 엮어내는 과정에는 일정한 원리가 존재하는데, 핵심사연·보조사연·삽입사연 사이의 질서가 핵심이 된다. 살아온 이야기는 이야기의 중핵이며 기준틀로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사연, 핵심사연을 뒷받침하며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드는 보조사연, 서사 맥락에서 벗어나 임의적으로 상황에 따라 등장하는 잡다한 삽입사연으로 다층화 된다는 것이다. 삶의 구조화라는 담화 전략은 살아온 이야기에 구조적 안정성과 문학적 완결성을 획득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일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되고 전승되는 이야기로 살아온 이야기를 기능하게 할 수 있다.

주제어 살아온 이야기, 담화 전략, 삶의 구조화, 핵심사연, 보조사연, 삽입사연

* 건국대학교

1. 문제제기

이야기판이 해체된 시기라고 한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이야기판에서 더 이상 설화 구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구비문학의 위기와 결부되기도 한다. 그러나 구비문학 연구의 위기인 것이지 구비문학이 위기인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이야기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판은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사랑방, 장터를 비롯한 전통적인 이야기판에서부터 전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현대적인 이야기판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판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 했다. 다만 구비문학의 연구대상으로 기능했던 설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뿐이다. 엄밀히 말하면 설화의 위기인 것이지, 이야기판 혹은 구비문학의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판에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야기판의 중심에는 일상생활 속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삶의 이야기-살아온 이야기¹⁾-가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고 살아온 이야기가 설화를 대신하는 이야기 종목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살아온 이야기는 과거의

1)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인류학, 역사학, 심리학, 사회학, 민속학, 여성학, 문학치료학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연구의 주제에 따라 개인담, 개인사, 경험담, 구술사, 생애담, 생활사, 자기서사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된다. 문학적 담화라는 측면에 부합하는 용어로는 개인담, 경험담, 생애담, 생활담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 생애담이다. 그렇지만 이야기판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지, 생애담을 들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이야기판에 존재할 때 고유의 정체성을 질게 드러내는 바, 용어도 이야기판에서의 맛을 최대한 살리도록 한다. (김예선, 「‘살아온 이야기’의 문학적 성격과 위상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면.) ‘살아온 이야기’라는 용어는 현장에서의 기능을 중시한 것인데, 용어의 문제도 보다 선명하게 논의되어야 할 지점 가운데 하나이다.

전통적인 이야기관에서부터 줄곧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연구자들에게 잡담류의 하나로 취급되어 녹음되지 못하거나, 녹음되었더라도 문자화되어 연구대상으로 기능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시각은 살아온 이야기를 불완전한 초급의 서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온당하다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동일한 지평으로 다루고 있는 롤랑 바르트의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형식, 시대, 장소, 사회, 문화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 이야기라고 했다.²⁾ 이 글의 시작점은 살아온 이야기가 이야기관을 구성하는 이야기 종류의 하나라는 데 있다.

문학적 관점에서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 주목하게 된 것은 최근의 동향이라 할 수 있다. 살아온 이야기에 대한 연구는 구술성, 여성, 이야기꾼과 소리꾼, 문학 갈래, 문학성 등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다.³⁾ 이러한 연구

2) 롤랑 바르트, 김치수 역, 「이야기의 구조적 분석 입문」,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0, 91-92면.

3)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구술성 : 김현주, 「'일상경험담과 '민담'의 구술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113-142면; 김경섭, 「설화 연행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구술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 한국고전연구학회, 1999, 133-182면.

②여성 : 천혜숙, 「여성생애담의 구술사례와 그 의미분석」,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68-80면; 천혜숙, 「농촌여성 생애담의 주제와 생애인식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227-267면; 천혜숙, 「농촌여성 생애담의 문학 담론적 특징」,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283-324면; 정현옥, 「여성생애담 연구-신수도 이야기관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195면.

③이야기꾼·소리꾼 : 김정석, 「김유식 구연 설화의 연구」, 『계명어문학 4, 계명어문학회, 1987, 215-229면; 강성숙, 「이야기꾼의 성향과 이야기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1-208면; 황인덕, 「맹인 이야기꾼 이몽득 연구」, 『인문학연구 3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235-277면; 나승만, 「민요 소리꾼의 생애담 조사와 사례 분석-서남해 도서지역 민요 소리꾼 생애담 조사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7,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165-186면; 강진옥, 「여성 민요 창자

결과는 한 개인의 살아온 내력에 관한 사적 담화가 학문의 질적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살아온 이야기에 대한 조명을 통해 구비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조사에 근거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것이 사실이다.

살아온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행위는 삶의 사연을 선택하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삶을 토대로 한 창조적 구술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야기하기 행위를 통해 살아온 이야기로 구성되는 사연은 삶의 함축된 지평으로 전체 삶 가운데 선택된 일부이지만, 부분은 곧 전체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살아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고민이라 할 수 있다. 살아온 이야기가 어떠한 담화 전략을 지니고 있을 때 이야기관에서 소통하며 이야기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하려는 것이 이번 작업의 일차적 목적이다.

2. 조사개관 및 자료의 성격

기존 연구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실제 조사에 기초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조사·연구의 방법론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정영엽 연구, 『구비문학연구』 7,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187-224면; 김윤희, 『여성소리꾼의 생애사에 따른 민요의 자기화와 창조적 형상화』,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156면; 김예선, 『선소리꾼 최장환의 살아온 이야기 연구』, 겨레어문학 40, 겨레어문학회, 2008, 139-159면.

④문학 갈래 : 신동훈, 『구전 이야기의 갈래와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비교민속학』 22, 비교민속학회, 2002, 365-402면.

⑤문학성 : 신동훈,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157-182면; 김예선, 『‘살아온 이야기’의 문학적 성격과 위상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32면.

연구자의 관심영역에 따라 판이 구성되고 그 흐름까지도 결정되는 것이 현지조사의 실상이라고 할 때, 방법론을 선명히 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의 기본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구체적인 고찰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조판구의 살아온 이야기로, 필자가 현지에서 조사·채록한 것이다.⁴⁾ 조판구의 살아온 이야기를 고찰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조판구가 이야기 구연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점, 살아온 이야기가 설화와 동일한 이야기 종목으로 인식되고 구연되었다는 점, 조사자의 유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이야기 판에서 이야기되었다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하게 살아온 이야기를 구연했다는 점, 청중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필자의 현지 조사 체험이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조판구는 남성이며, 1918년생으로 전라북도 정읍이 고향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노인들에게 '이야기박사', '조박사' 등의 별칭으로 불리는 이야기꾼이다. 조판구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29편의 이야기를 구연했다. 편당 구연 시간은 짧게는 2분에서부터 길게는 1시간 이상이며, 30분을 넘어서는 긴 호흡의 이야기가 대다수에 해당한다. 고담, 야담, 전설에서부터 신문에 실린 기사, 고향 마을의 풍문,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구연한 이야기 종목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조판구가 구연한 이야기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이러한 현지 조사 및 채록 작업은 2005년 9월부터 2년 동안 수행한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토대연구 <도심공원 이야기문화 조사연구-이야기꾼, 이야기판, 이야기텍스트의 입체적 자료화>를 통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신동훈·김종균·김경섭, 「도심 공원 이야기판의 과거와 현재-서울 종로구 이야기판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3, 한국구비문학회, 2006, 519-561면.)

날짜	장소	내용
2005.12.14.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의 유래
2006.01.12.	서울노인복지센터	바보 사위 박삼충
2006.01.26.	서울노인복지센터	공자, 석가모니, 예수가 삼대 성현이 된 이유 살아온 이야기①
2006.02.02.	서울노인복지센터	눈 부릅뜬 토끼
2006.02.16.	서울노인복지센터	함흥차사와 함경도 용강서원 구자곡의 유래와 이토정
2006.02.23.	서울노인복지센터	살아온 이야기②
2006.03.02.	서울노인복지센터	살아온 이야기③
2006.03.09.	서울노인복지센터	살아온 이야기④
2006.03.16.	서울노인복지센터	멧돼지 자식 최지원, 중국 천자가 데려가다
2006.03.23.	서울노인복지센터	파경노 최지원
2006.04.08.	종묘공원	정수동 이야기
		김삿갓의 글
		바보 사위 박삼충
2006.05.11.	종묘공원	김구 집안 이야기
		동고 하인 피씨 사위 이야기
2006.06.01.	종묘공원	살아온 이야기⑤
2006.06.22.	서울노인복지센터	당산에 묘 쓴 외사촌의 재판에서 마을 사람 편든 이야기
2006.07.13.	서울노인복지센터	피성춘 이야기
		석가모니 이마에 자국이 생긴 이유
2006.08.10.	서울노인복지센터	강증산 이야기
2006.08.24.	서울노인복지센터	원불교 이야기
		비랍 피다 머느리에게 걸려 자살한 시아버지
		대순진리회 이야기
2006.09.11.	서울노인복지센터	정읍군 탄생 내력
		살아온 이야기⑥
2006.09.25.	서울노인복지센터	불을 부(附), 떨어질 락(落)
		신불출 만담

조판구가 구연한 29편의 이야기 가운데 살아온 이야기는 6편에 해당한다. 조판구의 살아온 이야기는 화자 개인의 의지에 의해, 혹은 청중의 요

청에 의해 이야기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텍스트 자체도 묻고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화자에 의해 이야기 형태로 구성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사자는 거의 개입하지 않았으며, 청중의 개입은 그대로 수용했다. 한 편의 살아온 이야기라는 단위담의 기준은 화자의 호흡에 따랐다.⁵⁾ 즉, 화자가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삼은 지점부터 끝점으로 삼은 지점까지를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본 것이다. 채록 과정을 통해 음성언어를 문자언어로 전환했는데, 내용 단위로 문단을 구분하거나 대화를 살리는 정도의 편집을 제외하면 실제 이야기관을 그대로 옮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할 만한 구연 동작이나 상황은 괄호 안에 넣어 설명하는 것으로 했다. 채록 과정에서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않았으며, 내용 전개 순서를 새롭게 하지 않았다.⁶⁾ 조판구의 살아온 이야기를 담화 단위에 따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살아온 이야기① : 한국전쟁 때 남북의 충신 노릇을 했으며,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왔다.

살아온 이야기② :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식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하여 성공했다.

5) 조판구의 살아온 이야기에는 이야기의 시작점과 끝점이라는 화자의 호흡 단위가 명확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살아온 이야기는 이 지점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자기 서술하기는 시작-중간-끝의 구조 내에 이야기를 틀지움하기 마련인데, 이것은 문학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 사건들이 이해되기 위한 근본적인 방식이다. (Anthony Paul Kerby, *Narrative and the Self*,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p.6.) 살아온 이야기의 텍스트 단위를 구분하는 기준,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겨진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6) 조사 및 채록 방법에 대해 밝히려는 것은 이 글이 문학적 관점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지나온 삶을 '질문지에 기초하여 사실 정보의 차원에서 초점화 하는 것'과 '이야기 형태로 수렴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문학으로서의 살아온 이야기이기에 조사 및 채록 방법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살아온 이야기③ : 친구들과 고추장사를 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베푼 덕의 보답을 받았다.

살아온 이야기④ : 고추장사를 하다가 보통학교 동창을 만나 농협에 취직하게 되었다.

살아온 이야기⑤ : 신식학교 졸업하고 고추장사하다가 취직을 하게 되었고, 중매로 결혼했다.

살아온 이야기⑥ : 씨받이를 들이지 않고 아내와의 정을 지켜 칠남매를 낳고 살았다.

이 가운데 살아온 이야기①과 살아온 이야기⑥의 경우는 엄밀한 의미로 경험담에 가까운 살아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체로 문학적 미감을 지닌 이야기지만, 지나온 삶 전체를 꿰뚫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에 비해 살아온 이야기②③④는 조판구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각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그 사이에 접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살아온 이야기⑤를 통해 살아온 이야기②③④로 구성되었던 삶의 사연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살아온 이야기②③④를 본격적인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3. 살아온 이야기의 담화 전략

살아온 이야기의 담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형상화, 구조화, 주제화가 그것이다. 이 글은 구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담화 전략의 원리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는 곧 ‘단편적이고 제각각인 기억을 어떻게 조직하여 이야기하는가?’라는 물음이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나온 삶의 사연은 종잡을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덩어리 상태로 존재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삶의 사연을 살아온 이야기로 엮어낸다는 것은 기억을 불러내고, 그 안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학으로서 살아온 이야기는 발화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과거의 사연 가운데 의미 있는 몇몇을 선택하고 구조화하여 전하는 형상성 있는 이야기로 정의될 수 있다.⁷⁾ 이것은 살아온 이야기를 조직하며,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무엇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나온 삶의 지점을 아우르고 연결하며 풀어내는 살아온 이야기의 원리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조판구의 살아온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로 한다.

살아온 이야기②③④를 사건전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평보통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열여덟 되던 해에 졸업을 했다.
- (2) 집안 형편으로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세월을 보내다가 기술 배울 기회가 생겨 길을 떠났다.
- (3) 수연광산사무소에 들어갔는데, 일본어를 잘해서 노무주임 눈에 들었다.
- (4) 노무주임의 도움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취직해서 전기 용접공으로 일하게 되었다.
- (5) 대동아전쟁 이후 평양 병기소로 발령을 받아 갔고, 친구 여럿을 취직시켜 주었다.
- (6) 돈이 모일 때면 고향으로 보냈고, 아버지는 그 돈으로 소 마흔 마리를 장만했다. <살아온 이야기②>

7) 살아온 이야기에 대한 정의로는 Sandra Dolby Stahl의 논의가 가장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그녀는 화자의 사적 경험으로 이루어진 서사(사적서사)를 ①극적 서사 구조, ②서사가 진실하다는 함축된 주장, ③화자와 이야기 주요인물의 완전한 동일화로 정의했다. (Sandra Dolby Stahl, *Literary Folkloristics and the Personal Narrativ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pp.14-20.

- (7) 해방이 되어 고향에 돌아가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친구 둘이 고추장사 동업을 제안해 왔다.
- (8) 일행은 여수로 고추를 팔러 갔는데, 하루아침에 고추 값이 폭락해 통영으로 발을 옮겼다.
- (9) 통영에 도착한 일행은 한밤에 경찰 단속을 피해 우연히 한 집에 들어가 묵게 되었다.
- (10) 알고 보니 그 집 주인 내외는 젊은 시절 조판구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 (11) 내외의 도움으로 좋은 값에 고추를 팔고, 통영의 특산물인 멸치를 사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 (12) 여수 반란으로 화를 입었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은 무사귀환에 잔치를 벌였다. <살아온 이야기③>
- (13) 고추를 팔던 조판구는 보통학교 동창 최순선을 만나게 되어 그간의 소식을 주고받았다.
- (14) 최순선은 당시 농협 상무로 있던 자신의 남편에게 조판구 면접을 주선해주었다.
- (15) 함께 장사하던 친구들에게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고추장사를 그만두었다.
- (16) 농협에 취직한 이후에는 고추장사 경험을 살려 정읍군에 수백만 원의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 (17) 균조합으로 발령받은 뒤, 고구미를 썰어서 말리는 방법을 연구해 유명세를 탔다.
- (18) 원다섯 되던 해에 정년퇴직 했고,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 <살아온 이야기④>

이 이야기들은 각각 일주일이라는 물리적 시간 차이를 두고 구연된 것들이다. 각각은 그 자체로 개별적인 의미를 지니는 이야기 단위이기도 하지만, 연속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묶일 수 있다. 이처럼 전체이면서 부분으

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이야기 안에 공통적인 이야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살아온 이야기②③④에는 각각을 연결 짓는 삶의 사연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이야기로 엮어나가는데 필요한 구심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핵심 사연이라 할 수 있는데, 조판구의 경우에는 고추장사라는 경험이다. 고추장사라는 특별한 경험은 조판구의 삶 전체를 구조화하는데 필요한 기준틀로 작용하고 있다.

조판구의 살아온 이야기에서는 모든 삶의 요소가 고추장사 경험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의 삶은 고추장사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구조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구조화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담화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혹은 갈무리 지점에서 덧붙이는 대목을 통해 이러한 담화 전략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청중이 김삿갓 얘기를 하라고도 하고, 고추장사 하던 이야기를 하라고도 했다.] 아- 그런데 과거에 지낸 역사 얘기나 하라구 하면 모를까 나보구 고추장사 좀 했드니 그 얘길 허라구 허는데. 그렇게 듣고 싶으면 내가 고추장사 현 얘기 한번 할게. 근디 고추장사를 현 얘기를 할라믄 오늘은 내가 고추장사를 할 때까지 (잠시 생각하더니) 만 얘기를 하고 요 다음 얘기는 오늘 못 다 허여.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얘기를 할라니께 이 나이 먹드락 살아오면서 고추장사 현 얘기여.

오늘 꼬추장사한 얘기까지 인제 끝날게. 그러면 내가 꼬추장사 하면서 어 쟤냐- 하는 이 얘기는 이 다음에 할게. [청중 : 꼬추장사한 거는 끝내버리고 가.] 근디 내가 그 꼬추장사 하면서 그 뒷얘기가 또 들을 만한 얘기가 있어.
[청중 웃음]

내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몇 차례를 했는데 고추장사 헌 이야기를 두 번을 했어. 그렇지? [조사자 : 예.] 고치장사 히 가지고 돈도 벌고 은인도 만나 본 얘기도 허고 했는데. 내가 오늘은 고추장사 헌 마지막 얘기 한번 허. 꼬추장사로는 마지막 얘기에, 이게. 근디 고추장사를 허다가 이? 아- 내가 취직한 얘기를 허께. 고추장사를 허다가 취-직을 했어. 그- 얘기를 허께 들어 봐요.

살아온 이야기에서 조판구의 삶은 ‘고추장사 이전’, ‘고추장사’, ‘고추장사 이후’로 구분되고 있다. 고추장사를 하게 되기까지 그가 겪었던 삶의 사연은 고추장사 이전의 삶으로 통합되고 초점화된다고 할 수 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식교육을 받고 취직했던 삶의 경험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 장사 밑천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로 귀결되고 있다. 고추장사를 그만두게 된 내력과 그 이후의 경험 역시 고추장사 이후의 삶으로 통합된다. 따라서 이야기의 초점은 고추장사라는 삶의 경험이 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에 맞춰지는 것이다. 삶의 구조화라는 담화 전략은 이야기에 기본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문학적 담화로 기능하게 한다. 즉, 삶을 이야기로 구성하는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삶의 구조화라는 담화 전략이며, 이러한 담화 전략을 통해 문학적 완결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나온 삶을 살아온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과정에는 일정한 원리가 존재하는데 핵심사연, 보조사연, 삽입사연 사이의 질서가 그 핵심이 된다. 살아온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연은 핵심사연, 보조사연, 삽입사연으로 다층화 되며 그들 사이의 역할분담을 통해 정교한 질서⁸⁾를 만들어 내는 것

8) 신동훈은 이야기꾼 김한유가 구연한 만담을 통해 만담을 구성하는 이야기문법(삽화 선택의 원리)이 존재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끝간이 되는 삽화와 임의적·가변적인 삽화 간의 역할분담이 만담의 운용 원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다.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핵심사연 : 이야기의 중핵이며 기준틀로 중심을 잡아주는 사연
- 보조사연 : 핵심사연을 뒷받침하며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드는 사연
- 삽입사연 : 서사 맥락에서 벗어나 임의적으로 상황에 따라 등장하는 잡다한 사연

핵심사연은 이야기 구성의 기본축이 되는 것으로 뼈대에 해당하는 사연이다.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 중심점으로 작용하는데 조판구의 살아온 이야기에서는 '고추장사 경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핵심사연은 전체 이야기의 짜임새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살아온 이야기에서의 핵심사연은 마치 목표물과도 같아서 이야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핵심사연은 곧 이야기가 도달해야 할 지점과 일치하며, 이야기가 중심을 잃지 않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설령 잡다한 사연으로 인해 이야기가 맥락에서 크게 벗어났다 치더라도, 핵심사연이 존재함으로 인해 기본적인 맥락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핵심사연이 뚜렷하게 존재하면 할수록 이야기는 확실한 구심점을 지니게 되고, 안정된 이야기 구조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조판구의 경우에는 뚜렷한 핵심사연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핵심사연은 얼마든지 변주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핵심사연의 존재 유무 혹은 핵심사연의 설정 정도에 따라 이야기의 기본 구조도 영향을 받게 된다.

(신동훈, 「탐골공원 이야기꾼 김한유(금자탑)의 이야기세계」, 『구비문학연구』 7, 한국 구비문학학회, 125-136면.) 이 논의는 겉보기에 구조가 없어 보이는 이야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정교한 질서에 대한 해명으로 필자의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하여 보조사연은 핵심사연을 뒷받침하는 요소들로 이야기를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살아나게 만든다. 조판구의 살아온 이야기에서는 신식 공부를 한 사연, 일본인 눈에 들어 좋은 자리에 취직하여 돈을 많이 번 사연, 덕의 보답을 받아 고추장사로 성공한 사연, 우연한 기회에 동창의 도움으로 고추장사를 그만두고 취직한 사연, 고추장사 경험을 통해 얻은 감각으로 정읍군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 사연 등이 보조사연에 해당한다. 살아온 이야기는 핵심사연에 보조사연이 더해져 일정한 서사 맥락이 형성되는 것이다. 조판구의 경우에는 ‘신식공부를 배워 일본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취직이 되었고 이때 돈을 벌어서 고추장사 밑천을 마련했으며 고추장사 하면서는 덕의 보답을 받아 크게 성공을 하게 된 바, 우연히 보통학교 동창의 도움으로 농협에 취직하게 되었고 고추장사 경험을 살려 군내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고 성실히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했다’는 식이다. 이러한 서사 맥락은 이야기 진행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⁹⁾ 이러한 보조사연은 중심이 되는 핵심사연에 섬세함과 풍성함을 더하는 사연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살아나게 만든다.

삽입사연은 서사 맥락에서 벗어나서 당시의 상황, 요즘의 근황, 지난 시절의 추억, 우스갯소리, 삶에 대한 생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잡다한 사연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핵심사연과 보조사연 사이사이에 삽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삽입사연은 살아온 이야기가 문학으로 취급될 수 없는 이유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9) 살아온 이야기에 일정한 서사 맥락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조판구가 구연한 살아온 이야기⑤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살아온 이야기⑤는 종묘공원에서 구연한 것인데,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구연한 살아온 이야기②③④를 압축해 놓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살아온 이야기⑤ 역시 고추장사를 핵심사연으로 하여 이야기가 조직되었는데, 고추장사-고추장사 이후-고추장사 이전으로 전체 구조가 뒤바뀌고 보조사연의 구체화 정도에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삽입사연은 핵심사연과 보조사연 사이에 존재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다채롭게 만들고, 구연상황에 생명력을 더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아 서서 보니까 아 그 앞에 사무실 간판이 붙어있는데 (목소리를 높이며) 수연광산사무소라 이렇게 써 붙였어. 아 이놈의 광산이여, 광산. 수연을 파는 광산.

그르른 수연이라는 것이 뭘이냐 하면은, 뭘 보고 수연이라고 허냐 하면은, 요새 우리가, 학생들이 쓰는 연필있잖아. 연필이 그 속에 심은 것이 수연이여. 또 구연이 어디에 필요허냐, 요새 저 제철소에서 쇳물을 녹일 적으, 쇠를 그 도가지 쇠 녹이는 그 도가니가 수연이 안 들어가면 쇳물을 녹일 수가 없어. 하튼 보물이며, 그것이. 수연을 캐는 수연광산이여. 거기 간판을 보니 수연광산이라 써붙였드라구. 아 그리가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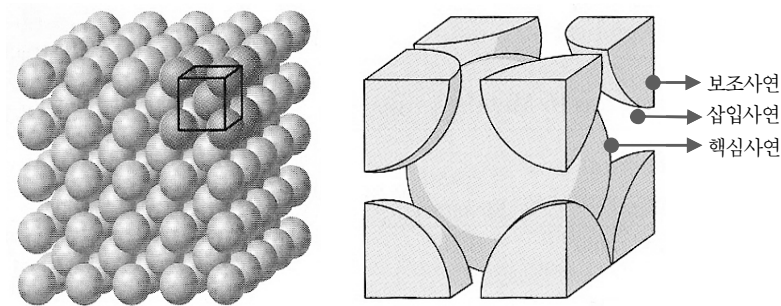
‘내가 여기 광산에 왔구나.’

(중략) 근디 여러분덜 그제 얼마나 큰 광산이나, 도로꾸를 밀고 돌이 떠억 들어가다 보니까 한 오분 동안 밀고 그 굴 안이를 들어가니까 상당히 오분 동안을 밀고 그냥 가니까 상당히 멀리 가잖았어. 약 한 오분 걸리더라고. 아 이 가니까 아 거그 가서 사거리가 나서. 그러면 일마구리, 이마구리, 삼마구리, 사마구리, 이렇게 네 군디로 가. 궁계 요쪽으로 가면 일마구리, 이쪽으로 가면 이마구리, 막 동서남북으로 굴이 막 뚫렸어.

수연에 대한 설명이나 광산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한다고 해도 조판구의 살아온 이야기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이 대목에서 임의로 두 가지 삽화를 더했다. 이것은 살아온 이야기에 껍진함을 더해주며, 이야기를 다채롭게 변주시키는데 한 몫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판구의 살아온 이야기②③④의 경우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구연한 것으로, 이야기판의 청중으

로 자리했던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조판구의 살아온 이야기를 서너 차례 이상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다. 그럼에도 청중들은 조판구의 살아온 이야기를 청했으며, 구연을 경청했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삽입사연을 통해 살아온 이야기를 다채롭게 변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삽입사연은 살아온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열린 이야기 구조를 지향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전제로 하는 살아온 이야기의 지향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핵심사연, 보조사연, 삽입사연 사이의 관계를 시각화¹¹⁾하면 다음과 같다.



10) 실제로 2006년 6월 1일 종묘공원에서 구연한 살아온 이야기⑤에서는 동일한 경험을 풀이낸 대목에서 위와 같은 삽입사연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구연한 살아온 이야기는 종묘공원이라는 환경적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이 농협에 취직하게 된 내력을 이야기하며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논평(‘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가 제일’)을 더하였다. 이것은 조판구가 종묘공원의 청중들이 시국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이라 어느 때보다 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조판구가 이러한 삽입사연을 구연하자 순식간에 청중이 많아졌다.

11) 이러한 구조 모형은 공학에서 금속의 기본구조로 이야기하는 체심입방구조(Body Centered Cubic Structure)와 동일한 것이다. BCC구조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 (W.D. Callister,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n Introduction*, Wiley, 1940, pp.33-37.)

우리의 삶은 수많은 경험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경험이 쌓여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데, 그 가운데 일부의 사연이 살아온 이야기로 구성된다. 살아온 이야기는 이야기의 중핵을 이루는 핵심사연(구)과, 그것을 보조하는 사연(1/8구), 그리고 각각의 사연들 사이에 임의적으로 개입되는 삽입사연(구와 1/8구 사이의 틈새)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핵심사연, 보조사연, 삽입사연은 살아온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단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기본형으로 이루어진 살아온 이야기가 존재하는가 하면, 기본형 몇몇이 결합된 구조의 살아온 이야기도 존재한다. 각각의 사연은 이야기의 전체 구조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내며 살아온 이야기를 문학적 담화로 자리하게 한다. 삶의 구조화라는 담화 전략은 궁극적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이야기종목의 하나로 이야기판에서 소통하며 기능하게 만드는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삶을 구조화 하는 담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기억의 주체는 화자와 청중 모두에 해당한다. 과거 삶의 기억을 재생해야 하는 화자에게 있어 삶의 구조화라는 담화 전략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화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삶의 구조화라는 담화 전략이 청중에게 기억되는 이야기로 살아온 이야기를 존재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청중 인터뷰 가운데 한 대목만 들어보기로 한다.

저 조판구 이야기를 하루 대절해 버려. 하루 아니라 매칠을 해두 할 양반 이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도 좋나쁜은 꼬추장사한 얘기를 할래두 두시간 걸려. 젊은, 소실 때 돈벌어 가주 가서 즈그 어르신이 소를 사가지고 댕 백 마리 되니까. 해방돼서 왔는데, 돈 읊어서 장사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자급주가 되어가지고 함께 장사를 했다, 그 얘기를 하면 두 시간 걸려, 두 시간. 그러니까 얘기를 매칠간 대절을 해도 된다구.¹²⁾

조판구의 단골청중이라 할 수 있는 박영재는 화자와 동일하게 고추장사라는 삶의 경험을 핵심사연에 자리 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고추장사를 하게 되기까지의 내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짚어내는 지점이 조판구가 구연한 살아온 이야기의 주요 사연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박영재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조판구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대다수의 청중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조판구에 의해 구조화된 삶의 사연이 공통의 기억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고추장사 이야기를 들려 달라, 고추장사하다 취직한 이야기를 들려 달라, 고추장사로 돈 많이 벌어서 예쁜 여자 만난 이야기¹³⁾를 들려 달라는 식의 이야기 요청은 고추장사를 핵심사연으로 삶을 구조화한 담화 전략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삶의 구조화라는 담화 전략은 조판구의 삶을 고추장사로 각인시키는데 한 몫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야기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담화 전략은 화자와 청중 모두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기억되는 이야기로 존재하게 하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살아온 이야기 전승의 실마리를 조심스레 짐작해볼 수 있다.

12) 박영재(남, 1927년생) 전라남도 함평 출생,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거주, 2006년 2월 16일 인터뷰.

13) 조판구는 유일하게 이 대목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놓지 않았다. 손녀딸 같은 사람을 데리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청중들은 그의 살아온 이야기 가운데 그 대목이 단연 으뜸이라고 전했으며, 고추장사로 돈 많이 벌어서 예쁜 여자 만난 이야기를 짓궂게 청했지만 조판구는 끝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대목은 청중에 의해 구체화된 형태의 이야기로 구연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살아온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전승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마무리

이제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단편적이고 제각각 흩어져 존재하는 기억들은 살아온 이야기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치며 과거의 삶을 구조화한다. 삶을 이야기로 엮어내는 과정에는 일정한 원리가 존재하는바, 핵심사연·보조사연·삽입사연 사이의 질서가 핵심이 된다. 각각의 사연들이 제 역할을 다할 때 살아온 이야기는 구조적 안정성과 문학적 완결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삶의 구조화라는 담화 전략은 일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되고 전승되는 이야기로 살아온 이야기를 기능하게 할 수 있다.

살아온 이야기의 담화 전략 가운데 구조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살아온 이야기를 문학 영역에서 다룰 때 줄곧 시뮬터가 되었던 지점이기 때문이다. 살아온 이야기는 잡다한 이야기의 전형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실제로는 설화 이상의 짜임을 지니고 있다. 기억에 근거한 과거의 삶이 효율적으로 조직되어 형상화되는 것이 살아온 이야기이기에 그러하다. 사연과 사연 사이사이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지만 서사의 맥락을 벗어났다고 여겨지는 사연들조차도 삶의 여러 측면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핵심사연을 이야기가 도달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이런 궁극의 지점이 존재하기에 맥락을 벗어났던 사연들이 제자리를 찾아 되돌아온다는 살아온 이야기의 운영 원리는 우리들 삶의 운영 원리와 닮아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현지 조사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체득한 바다.

조판구의 살아온 이야기라는 비교적 완전한 짜임새를 지니고 있는 이야기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살아온 이야기 전반으로 확대해 본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견되리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 살아온 이야기의

기본 구조로 제시한 핵심사연, 보조사연, 삽입사연의 관계는 얼마든지 변주될 수 있는 것이다. 핵심사연으로만 구연되는 경우, 핵심사연과 보조사연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여러 보조사연으로만 구연되는 경우, 삽입사연이 핵심사연 이상의 무게감으로 구연되는 경우 등 핵심사연·보조사연·삽입사연 사이에는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지점에 본논의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글에서는 앞으로의 심화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살아온 이야기의 구조적 틀을 마련해 본 것이다. 살아온 이야기의 구조적 층위로 제시한 핵심사연·보조사연·삽입사연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유기적으로 서로의 관계망을 의미화 하며,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 패턴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예선, 「‘살아온 이야기’의 문학적 성격과 위상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32면.
- 김예선, 「문화콘텐츠로서의 ‘살아온 이야기’ 연구」, 『겨레어문학』 34, 겨레어문학회, 2005, 147-168면.
- 신동훈, 「탑골공원 이야기꾼 김한유(금자탑)의 이야기세계」, 『구비문학연구』 7,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119-147면.
- 신동훈·김종균·김경섭, 「도심 공원 이야기관의 과거와 현재-서울 종로구 이야기관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3, 한국구비문학학회, 2006, 519-561면.
- Anthony Paul Kerby, *Narrative and the Self*,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pp.1-141.
- Roland Barthes, 김치수 역, 「이야기의 구조적 분석 입문」,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0, pp.91-138.

Sandra Dolby Stahl, *Literary Folkloristics and the Personal Narrativ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pp.1-148.

W.D. Callister,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n Introduction*, Wiley,
1940, pp.1-871.

ABSTRACT

The discourse Strategy of ‘Life Stories’

Kim, Ye-Sun

This article focused on that life stories can conversably be capable with the discourse strategy. Life experiences which are fragmentarily and individually existed structuralize the past life through the re-organized process to life stories. During the process to make stories, regular principles are existed, and order of focused, assisted and inserted stories is central point. Life stories are divided into three stories: focused stories which are kernel of stories and lead life stories with the standard, assisted stories which support focused stories and make abundant stories, and inserted stories which discreetly appeared according to certain environment during leaving the context. The discourse strategy which organized life gives structural stability and literary completion to life stories. Also, life stories can be functioned as not disposable stories but remembered and traditional stories.

Key Words Life stories, Discourse strategy, Organization of Life, Focused stories, Assisted stories, Inserted stories

논문투고일 : 2009. 3. 31
심사완료일 : 2009. 4. 29
게재확정일 : 2009. 5. 15